

“영 적 실 체”

히브리서 11:30

오늘은 히브리서 10 번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을 단 하나의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 11:30)

즉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오만하게 날뛰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마귀의 존재는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 결말이 존재했던 것은 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제어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경성하여 깨어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우리는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 받은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에덴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인간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마귀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결코 사탄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우리 주위에 말씀으로 철조망을 쳐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철조망을 치는 것과 같이, 우리 주위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철조망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3: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성패는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늘 사모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하루를, 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 성령충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7-18)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곧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성령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충만한 것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님을 모시고, 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4.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목장에서의 예배에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의 첫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영적 특권이며 하나님을 향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전에서의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이 끈끈한 신앙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혼자서는 타다가 곧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장작 더미가 쌓이면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하면 더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비결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제어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영적세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가지 방법 가운데, 두번째가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듯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철조망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의 네번째 교훈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 목장 식구들로 인해 영적인 싸움(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